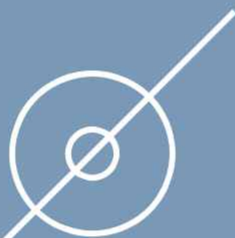


사이버 안보와 주권



2023

〈요 약〉

디지털 시대 영토경계가 불분명한 네트워크 공간의 부상과 함께 주권 개념 논쟁은 새롭게 재점화 되었고, 최근 사이버 주권 논쟁은 강대국 경쟁의 부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쇠락과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이라는 국제질서 변화와 밀접히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주권은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담론경쟁, 규범경쟁, 거버넌스 경쟁의 핵심 주제이다. 전통적 주권개념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적용과 이를 둘러싼 중국과 서구의 논쟁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와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한 보편 원칙과 규범 창출, 이행에 주요한 제약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 규범과 거버넌스의 핵심 논쟁인 사이버 공간의 주권 논쟁을 살펴보고, 주권개념과 연계된 오랜 정치적 논쟁들이 어떻게 사이버 안보와 연계되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사이버 공간의 안보화 관점에서 EU와 중국의 주권 개념을 비교 분석한다.

중국은 ‘중국 특색의 인터넷 관리 방안(中国特色治网之道)’을 주장하고, 반패권과 반강권, 내정 불간섭의 관점에서 사이버 주권을 강조하고, 사이버 주권 원칙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EU는 중러 양국이 사이버 주권(cyber sovereignty)이라는 표어 아래 정보흐름의 대내외적 통제와 체제 유지라는 외교 아젠더를 추구해 왔다고 비판하고, EU의 주권개념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사이버 주권 논의와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규정하고 데이터 주권과 기술주권의 관점에서 사이버 주권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이러한 중국과 서구의 사이버 주권 논쟁이 미중 강대국 경쟁과 함께 지속될 가능성과 국제 질서에 미치는 함의를 제시한다.

I. 서론 : 사이버 안보와 주권논쟁

오늘날 인터넷 거버넌스는 글로벌 무역 및 환경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 균열과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 대한 기술의 발전과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사이버 공간은 국가의 권한과 국가관계에 있어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자국 영토 안의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의 열망 속에서 ‘사이버 주권 (cyber sovereignty)’ 개념의 부상과 이를 행사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조치들이 부상하고 있다.¹⁾ 이는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개념 변화와 논쟁을 경험하였던 ‘주권(sovereignty)’ 개념에 새로운 라운드의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주권 개념은 시간에 따라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매 시기마다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있어 왔다.²⁾ 이러한 주권 개념 논쟁은 디지털 시대 영토경계가 불분명한 네트워크 공간의 부상과 함께 새롭게 재점화되었고, 최근 사이버 주권 논쟁은 강대국 경쟁의 부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쇠락과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이라는 국제질서 변화와 밀접히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정보화를 넘어 지능화의 시대에 세계 주요국들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 대한 담론과 가치규범, 거버넌스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주권’은 사이버 공간과 연계된 담론과 규범, 거버넌스 경쟁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중국은 사이버 주권 문제가 사이버 공간의 많은 문제들 중 특별한 위상을 갖는 중요한 의제로 강조하고 있다. 국가주권이 근대 국제질서와 국제법의 초석인 바와 같이 정보화 시대에는 사이버 주권 원칙이 사이버 공간 국제질서와 국제법의 초석이 되고 이 사이버 주권 문제에 대한 발언권과 주도권을 쥌 수 있는 사람이 사이버 공간 질서구축과 규칙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인식한다. 오늘날 세계의 사이버 주권 논쟁은 곧 사이버 공간 주도권 경쟁이라고 강조한다.³⁾ 중국의 이러한 사이버 주권 강조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권위주의 정권이 그들의 온라인 검열과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이버 주권을 언급해 왔다고 비판한다.⁴⁾ 특히 유럽은 미중 경쟁 시대 사이버 공간의 기술 역량과 규범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주요한 의제로 ‘디지털 주권’을 내세우면서, 체제 유지에 목적을 둔 중국의 주권론과 차별화되는 논의임을 강조하고 있다.⁵⁾

사이버 주권 개념은 사이버 공간의 국제규범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면서, 한편으로 사이버 이슈에 대한 다양한 논쟁과 갈등의 주요한 배경이다.⁶⁾ 미중 경쟁의 부상과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와 가치규범 경쟁이 심화되고 디지털 경제와 사이버 안보의 부상 하는 환경 속에서 사이버 공간의 ‘주권’ 논의 또한 다양하게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 주권개념의 사이버

1) Madhuvanthi Palaniappan, “Cyber Sovereignty: In Search of Definitions, Exploring Implications,” ORF Issue Briefs and Special Reports. 2022.12.28. <https://www.orfonline.org/research/cyber-sovereignty/> (검색일: 2023/05.21)

2) Chris Brown, “The State and Sovereignty,” in Colin Hay, Michael Lister and David Marsh eds. *The State: Theories and Issues* (2nd edition), (London: Bloomsbury Academic), p.189.

3) 黄志雄 (2017), 『网络主权论: 理论, 政策与实践』(社会科学文献出版社), p. 1.

4) Indo-Pacific Defense Forum Staff, “Cyberspace Freedom, Allied and Partner Nations Resist Authoritarian Controls Imposed Under the Guise of Digital Sovereignty,” 2023.04.12. <https://dialogo-americas.com/articles/cyberspace-freedom-allied-and-partner-nations-resist-authoritarian-controls-imposed-under-the-guise-of-digital-sovereignty/>

5) European Union, Digital Sovereignty: From Narrative to Policy? 2022.12. https://eucd.s3.eu-central-1.amazonaws.com/eucd/assets/_dpBkAW4/digital-sovereignty-from-narrative-to-policy.pdf (검색일: 2023.05.21.)

6) Hao Yeli, “A Three-Perspective Theory of Cyber Sovereignty,” Prism 7 (2), p.110.

공간에 대한 적용과 이를 둘러싼 중국과 서구의 논쟁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와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한 보편 원칙과 규범 창출, 이행에 주요한 제약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 공간의 주권 논쟁을 중국과 EU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사이버 공간의 안보화 관점에서 주권 담론의 차이와 그 배경을 분석한다. 강대국 경쟁의 부활과 함께 사이버 주권 논쟁은 새로운 공간의 규범 주도, 질서주도 경쟁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결론에서 이러한 사이버 주권 논쟁이 중국과 서구 간의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범 경쟁과 글로벌 거버넌스 경쟁 구도 속에서 지속될 가능성과, 향후 사이버 공간 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의 함의를 제시한다.

II. 사이버 안보화와 주권 논쟁

1. 주권 개념과 사이버 공간에의 적용

초기 근대 정치사상에서 비롯된 다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주권(sovereignty) 또한 단일한 일치된 개념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권 개념이 설명하고자 했던 현실들이 변하거나 추가적인 도전들이 등장하면서 주권의 개념 또한 내용적 변화를 겪어야 했다. 근대 국민국가가 경험한 다양한 도전과 이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는 주권의 일반적 특징들을 다양하게 재구성해왔다.⁷⁾ 슈미트(Schmitt)는 모든 법률 개념 중에 주권 개념이 가장 실질적 이익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강조한다. 보댕(Bodin)에 의해 시작된 개념이긴 하나 개념이 다양한 정치권력 싸움에 의해 발전되고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반복되고 있는 전통적 개념은 주권은 최고의 법적으로 독립된, 기본적 권력이라는 것이다.⁸⁾ 주권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시간에 따라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매 시기마다 개념의 논쟁이 있어 왔다.⁹⁾

홉스(Hobbes)의 리바이어던은 서문에서 “주권은 인공적 영혼(artificial soul)”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가(라틴어 Civitas)라고 불리는 거대한 리바이어던은 인간보다 더 크고 강하지만 인공적인 것에 불과하며, 주권은 그 안의 인공적 영혼이라는 것이다.¹⁰⁾ 결국 국가는 인간에 의한 창조물이며, 주권은 보호와 방어를 목적으로 인간에 의해 그 국가에 제공된 권한이다. 보댕(Bodin)은 이러한 주권이 연방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권력이라고 강조한다.¹¹⁾ 주권의 핵심 아이디어는 영토에서 정치적 권한 혹은 권위의 궁극적 요소이다. 오늘날 관례적으로 ‘내적 주권(internal sovereignty)’와 ‘외적 주권(external sovereignty)’을 구분하고 있으며, 내적 주권은 국가의 구성에 관한 것이고, 외적 주권은 국가간 관계에 관한 것이다. 내적 주권은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권위에 관한 것이고, 외적 주권은 독립 혹은 국가의 자율성에 관한 것이다.¹²⁾ 주권은 국가에게 영

7) André Santos Campos, Susana Cadilha (2021), *Sovereignty as Value: Values and Identities: Crossing Philosophical Border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vii-viii.

8) Carl Schmitt, *Political Theology: Four Chapters on the Concept of Sovereignty* (University Chicago Press, 2005), p. 17.

9) Chris Brown, “The State and Sovereignty,” in Colin Hay, Michael Lister and David Marsh eds. *The State: Theories and Issues* (2nd edition), (London: Bloomsbury Academic), p.189.

10) Thomas Hobbes (1651). *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 and Civill*. London, printed for Andrew Crooke, at the Green Dragon in St. Pauls Church-yard, p.7.
<https://socialsciences.mcmaster.ca/econ/ugcm/3ll3/hobbes/Leviathan.pdf>

11) Jean Bodin (1992), *On Sovereignty: Four Chapters from the Six Books of the Commonwealt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I.

12) Christopher W. Morris, “Sovereignty, Some Skeptical Thoughts,” in André Santos Campos, Susana Cadilha (2021), *Sovereignty as Value: Values and Identities: Crossing Philosophical Borders*, Lanham, MD:

토내 통제권 행사와 국제사회에서 영토와 국민을 대표하는 권리(right)를 갖고, 한편으로 다른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고 개입하지 않고 자국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통제할 의무(obligation)를 부여한다.¹³⁾

이러한 전통적 주권 개념은 탈냉전기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주요한 도전을 경험하여 왔다. 21세기 세계화와 함께 주권국가가 초국적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형태로 변형되면서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국가와 주권의 위기, 포스트 베스트팔렌 시대(post-Westphalian era)에 대한 보편화된 믿음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주권 개념은 여전히 세계질서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포스트 주권’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¹⁴⁾ 인터넷이 주권국가에 주는 주요한 도전은 초국적 범위, 무한 규모, 통제권의 분산이다. 네트워킹에 대한 권한과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정치 권력 기구와 밀접히 연계되지 않고 초국적 정책 네트워크 형성 등 정치자체를 바꾸기도 한다. 물러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소통과 정보에 대한 국가통제와 주권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¹⁵⁾ 캔더와 선은 ‘Sovereignty 2.0’에서 인터넷은 주권을 종식시키도록 되어 있었다고 강조한다.¹⁶⁾ 발로우(Barlow)는 ‘A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 (사이버공간의 독립선언)’에서 “사이버 공간은 당신들의 국경 안에 있지 않다. 당신이 그것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마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자연의 행위이며, 우리의 집단적 행위를 통해 성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¹⁷⁾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권위를 말하는 ‘내적 주권’과 대외관계에서의 독립과 자율성에 관한 ‘외적 주권(external sovereignty)’의 측면에서 사이버 공간은 여전히 주권에 대한 전통적 논의들이 도전받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내적 주권과 외적 주권 차원에서 모두 전통적 주권개념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아 왔다. 탈봇(Talbot)은 국가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주권적 의무를 갖지만, 그에 따른 상응하는 책임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¹⁸⁾ 세계는 사이버 공간에도 주권국가의 권위와 통제의 필요성을 유지하고 규범과 룰을 만드는 주체로서 절대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담론과 입법 등의 조치들을 강화해 가고 있다.

2013년 사이버 전쟁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대한 <탈린매뉴얼>은 첫 번째 원칙으로 주권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주권 영토내의 사이버 인프라와 활동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어느 국가도 사이버 공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자국 영토 내에 설치된 인프라와 그 인프라와 연계된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¹⁹⁾ 2017년 개정된 <탈린 매뉴얼 2.0> 또한 국가 영토내 주권 개념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있다.²⁰⁾ UN GGE 보고서 또한 “국가의 ICT관련 활동에 대한 주권 적용과 영토 내의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21.

13) Eric Talbot Jensen, *Cyber Sovereignty: The Way Ahead*, 50 TEX. INT'L L. J. 275 (2014). pp.282-284. https://digitalcommons.law.byu.edu/cgi/viewcontent.cgi?article=1239&context=faculty_scholarship (검색일: 2023.11.12.)

14) André Santos Campos, Susana Cadilha (2021), *Sovereignty as Value: Values and Identities: Crossing Philosophical Border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viii.

15) Milton L. Mueller, *Networks and States : The Global Politics of Internet Governance* (MIT Press, 2010) pp.4-5.

16) Anupam Chander and Haochen Sun (2021), *Sovereignty 2.0*,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p.3.

17) John Perry Barlow, “A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1996.02.08. <https://www EFF.org/cyberspace-independence#main-content> (검색일: 2023.05.26.)

18) Eric Talbot Jensen, *Cyber Sovereignty: The Way Ahead*, 50 TEX. INT'L L. J. 275 (2014). pp.287-288.

19) Michael N. Schmitt (2013), *Talli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International Group of Experts at the Invitation of the NATO Cooperative Cyber Center of Excell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25. <https://www.nowandfutures.com/large/Tallinn-Manual-on-the-International-Law-Applicable-to-Cyber-Warfare-Draft-.pdf> (검색일: 2023.11.11.)

ICT인프라에 대한 관할권에 이르기까지 국가 주권과 국제규범과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²¹⁾

디지털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들 또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그들의 주권을 주장하여 왔다. 어떤 국가들은 미국 지배의 인터넷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데 중점을 두는가 하면,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물리적, 논리적,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더 강한 통제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²²⁾ 크라즈너(Krasner)의 유명한 주장처럼 ‘주권’은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으로 구성된 것들에 의존하는 논쟁적 개념이라는 것이다.²³⁾ 디지털 시대 사이버 공간의 주권 개념은 이렇듯 각 국가마다 다른 정치사회적 구성에 따라 다르게 접근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사이버 ‘안보화(securitization)’와 주권 논쟁

비에스테커(Biersteker)는 국가, 주권, 영토의 개념은 모두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각 국가의 사례와 같이 다른 조직들의 규범, 행동, 실천에 의해 규정되고 재규정 된다고 강조한다.²⁴⁾ 바르킨(Barkin) 또한 국가주권을 어떠한 하나의 정해진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으로 해석한다.²⁵⁾ 이는 사이버 주권 개념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각 국가의 정치사회적 요건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권은 역사적으로 그 개념이 지속 변화해 왔지만, 영토 내에서의 최고권위(supreme authority within a territory)라는 핵심적 개념이 존재한다.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는 대가로 개인이 국가에 권한과 권력을 부여한다는 국가주권(state sovereignty) 원칙 하에 개인과 국가가 통합된다. 그래서, 안보(security)를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로 정의하는 것은 ‘이상적’ 국가가 제공하는 개인 안보의 추상적 개념을 표현한 것이다.²⁶⁾ 즉 주권은 국가가 개인의 안보를 목표로 국가에 부여하는 권한과 권력이다. 그러나, 실제 개인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정책결정자들의 정치적 동원과 담론 형성의 과정이라는 것이 ‘안보화’ 이론의 주장이다. ‘안보’의 일반적인 개념은 국가안보 담론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위협과 적을 대응하고 결정할 역량, 비상조치 채택 등의 권위에 대한 강조를 의미한다. 안보는 특별한 정치적 담론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안보화’의 정확한 개념과 분류는 실제로는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현저성을 지닌 실존적 위협의 상호주관적 구축에 의해 구성된다.²⁷⁾ 결국 안보 담론과 전략은 권력을 가진 정책결정자 혹은 그룹이 위협을 규정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을 설정하는 ‘안보

20) Michael N. Schmitt, *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 (2017,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5-16.

21) UN General Assembly.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Advancing Responsible State Behaviour in Cyberspac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2021.7.14. p.17. <https://dig.watch/wp-content/uploads/2022/08/UN-GGE-Report-2021.pdf> (검색일: 2023.05.21.)

22) Amaël Cattaruzza, Didier Danet and Stéphane Taillat. (2016), “Sovereignty in Cyberspace: Balkanization or Democratization,” IEEE 2016 International Conference. p.3.

23) S. D. Krasner, *Sovereignty: Organised Hypocrisy*, Princeton, NJ: Princeton UP; 위의 글 Amaël Cattaruzza 외 (2016) p.3.에서 재인용

24) Thomas J. Biersteker, “State, Sovereignty, and Territory,” in Walter Carlsnaes, Thomas Risse and Beth A. Simmons,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2nd edition (2013, Sage Publication), p.245.

25) J. Samuel Barkin, *The Sovereignty Cartel*, (2021, Cambridge University Press). p.21.

26) Lene Hansen, Helen Nissenbaum, “Digital Disaster, Cyber Security, and the Copenhagen School,”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009) 53, pp.1159-1160.

27) Lene Hansen, Helen Nissenbaum, “Digital Disaster, Cyber Security, and the Copenhagen School,”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009) 53, p.1158.

화' 과정을 거쳐 확정되고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²⁸⁾

결국 주권 개념의 사회적 구성과 안보화의 관점에서 사이버 주권 논쟁 또한 위협을 상호주관적으로 구성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담론을 구체화하는 '안보화'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인식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위협의 성격이 다르고 주권 형성의 역사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주권 개념은 매우 논쟁적이다. 비에스테커의 주장처럼 주권 개념은 무엇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안보화의 과정 속에서 규정되고 이는 국가마다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다른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정불간섭 의무와 주권 행사에 제약이 있더라도 안보리 결의를 따르고 인권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되나,²⁹⁾ 안보화에 따라 국가들은 이 의무를 다르게 접근하기도 한다. 사이버 주권 개념을 둘러싼 중국과 서구의 논쟁은 무엇이 핵심 위협인지 그리고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치사회적 구성과 담론화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안보화라는 관점에서 위협의 근원과 보호의 대상이 다르게 인식되고 형성되는 안보화의 차이를 중국과 서구간의 논쟁적 사이버 주권 개념 형성의 주요한 배경으로 주목한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사이버 주권 문제를 자국의 안보화와 연계하여 강조하는 경향이 낮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사이버 '주권' 개념을 강하게 내세우는 EU와 중국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사이버 주권 논쟁을 분석한다.³⁰⁾ 중국의 사이버 주권 개념이 영토주권의 확장으로서 국가통제권의 권리와 내정불간섭의 의무에 중점을 둔 것인데 반해, EU는 강대국 경쟁과 외국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자국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다. 중국은 사이버 공간을 영토 국경의 확장으로 강조하고 내정불간섭의 의무를 강조하는 반면,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과 개인정보보호를 목표로 한 기술주권과 데이터 주권을 핵심구성요소로 하는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을 내세우고 인권의무를 강조한다.

중국과 유럽간의 사이버 주권 담론은 또한 전통적 주권 논쟁의 연장선에서 분석될 수 있다. 우선 국가주권과 국민주권간의 충돌, 국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쟁이다. 국가주권과 국민주권간의 논쟁은 가치논쟁과 연계되어 나타난다. 그로티우스는 국가가 주권의 공통적 주체라고 강조하고, 국민(people)은 그 자체로서 국가가 아니라고 말한다.³¹⁾ 유엔헌장도 한편으로 국가주권에 대한 강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인권개념의 촉진은 이 원칙을 잠재적으로 뒤집고 있다.³²⁾ 이러한 국가주권과 인권존중의 잠재적 충돌가능성에도 불구하고 UN GGE 보고서는 여전히 주권과 인권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발전 뿐만 아니라 주권, 인권, 근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³³⁾ 국가주권과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중국과 서구의 접근에 차이가 나타난다. 둘째, 국가간 관

28) 차정미 (2018),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보 담론과 전략, 제도 분석," 『국가안보와 전략』 18(1), p.8.

29) Eric Talbot Jensen, *Cyber Sovereignty: The Way Ahead*, 50 TEX. INT'L L. J. 275 (2014). p.289.

30) 미국의 경우는 2023년 3월 발표된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에서 주권국가를 강압하기 위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언급에서 주권문제가 간략히 언급될 뿐이다. The White Hous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2023.03.; 미국 내에서는 EU가 디지털 주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존재한다. 아톨리타노(Autolitano)는 유럽의 디지털 주권 담론이 유럽의 첨단기술 분야 취약성을 노출하고 사이버안보 과정에서 중요한 주체들을 배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디지털 주권을 추구하는 대신 유럽이 해야 할 일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 밖의 조직들과 사이버 안보 파트너십 촉진을 강조하는 디지털 책임성(digital responsibility)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Simona Autolitano, "Why the EU Should Stop Talking About Digital Sovereignty," CFR, 2023.04.10.

31) Stephen C. Neff (2012), *Hugo Grotius on the Law of War and Peace, Student E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51.

32) Chris Brown, "The State and Sovereignty," in Colin Hay, Michael Lister and David Marsh eds. *The State: Theories and Issues* (2nd edition), (London: Bloomsbury Academic), p.190.

계에서 간섭, 개입(intervention)의 문제이다. 유엔헌장 2조는 주권평등의 원칙과 함께 7항에서 국내관할권 내의 문제에 대해 유엔의 개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주권존중의 원칙과 함께 다만 이 원칙이 7장 “평화 위협, 평화파괴, 침략행위에 대한 조치”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전제한다.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필요한 경우 안보리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³⁴⁾

본 연구는 이러한 사이버 안보화의 차이와 전통적 주권 논쟁의 연장선 상에서 중국과 유럽의 사이버 주권 논쟁을 분석한다. 사이버 공간의 데이터,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 권한의 측면을 강조하고 영토내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가점유의 측면을 강조하는 중국과 이에 반해 기술적 전략적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역량과 규범역량을 토대로 전략적 자율성과 개인 보호를 강조하는 유럽 간의 사이버 주권 논쟁의 내용과 배경을 분석한다.

III. EU의 사이버 안보화와 주권 논쟁

1. EU의 사이버 안보화와 디지털 주권 담론의 형성

2022년말 발간된 EU의 디지털 주권 보고서는 다자적 국제질서의 부활이라는 배경 속에서 EU의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2019년 European Commission 「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 제하의 디지털 전략 보고서에서도 디지털 주권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디지털 주권, 기술주권, 데이터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유럽내 논쟁은 EU 차원에서는 물론 개별 회원국들 차원에서도 최근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개념이다.³⁵⁾

EU의 디지털 주권 강조의 배경은 기술 취약성, 대외 의존성으로 인한 취약한 전략적 자율성과 자국 국민의 정보보호 권한 약화에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 등이 자국의 데이터 및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는 상황에 대한 위협인식으로 디지털 생태계의 경계를 다시 확인하고 데이터 및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Gaia-X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외국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되찾고 전략적 자산을 통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³⁶⁾

이러한 EU의 디지털 주권 담론은 사이버 문제와 연계된 두 가지 중대한 위협인식에 근거한다. 첫 번째는 외국기업의 영향력 확대와 이에 대한 의존이고 두 번째는 미중 경쟁이라는 강대국 경쟁에 따른 강압에의 노출과 취약성이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EU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디지털 주권이 강조되고 있다. EU의 사이버 주권 논의는 미중 경쟁의 부상과 지정학적 불안정이라는 국제환경의 추세 속에서 강화되었다. 2019년 유럽연합

33) UN General Assembly,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Advancing Responsible State Behaviour in Cyberspac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2021.7.14. p.6. <https://dig.watch/wp-content/uploads/2022/08/UN-GGE-Report-2021.pdf> (검색일: 2023.05.21.)

34) UN, “United Nations Charter,”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full-text>

35) European Union, Digital Sovereignty: From Narrative to Policy? 2022.12. p.9 https://eucd.s3.eu-central-1.amazonaws.com/eucd/assets/_dpBkAW4/digital-sovereignty-from-narrative-to-policy.pdf (검색일: 2023.05.21.)

36) Edoardo Celeste, “Digital Sovereignty in the EU: Challenges and Future Perspectives,” in Federico Fabbrini, Edoardo Celeste and John Quinn (eds), *Data Protection beyond Borders: Transatlantic Perspectives on Extraterritoriality and Sovereignty* (Hart 2021), p.6.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전략 <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에서 유럽이 '다른 나라의 표준을 따르기보다는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고 표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EU의 디지털 주권 보고서는 국제질서의 다극화, 미중 지경학적 정치적 경쟁, 러시아의 군사공세 등을 배경으로 EU가 (디지털) 주권,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고 강조하고 있다.³⁷⁾

또한 유럽의 취약한 디지털 기술과 산업, 이로 인한 외국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주권 담론의 중요한 배경이다. 비EU 테크기업들의 영향이 EU 정책 결정자들에게 큰 우려였고, 특히 EU의 데이터 경제와 혁신잠재력, 그리고 EU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 보호,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외국 테크기업들의 영향이 중대한 우려였다.³⁸⁾ 2020년 유럽의회연구소의 보고서 <Digital sovereignty for Europe>은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기업들이 주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온라인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러한 개인 데이터들을 정치적 프로파일링 목적으로 추출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유럽시민들이 점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할 것이라는 위험인식을 강조하고 있다.³⁹⁾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 5G 인프라에 대한 의존과 통합된 유럽 사이버공간의 부재로 외국기업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유럽의 핵심 취약점으로 강조되어 왔다. EU 회원국들은 단일 공급자에 대한 과잉의존이 안보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인식하였다.⁴⁰⁾

EU 시민, 기업인, 회원국들이 점점 더 그들의 데이터, 혁신역량,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규범을 형성하고 강제하는 역량에 대한 권한을 잃어가는 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쇠퇴에 대응해 디지털 분야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더 힘을 얻어왔다는 것이다.⁴¹⁾ 202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 시대 보고서(Report on the state of the Digital Decade)> 또한 '디지털 기술이 지정학적 긴장과 심화되는 기술경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와 지적 재산권 뿐만 아니라 디지털 상품의 80%가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을 주요한 위협으로 강조하고, '주권적 경쟁력있는 유럽을 위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for a sovereign and competitive Europe)'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⁴²⁾

37) European Union, *Digital Sovereignty: From Narrative to Policy?* 2022.12. p. 11. https://eucd.s3.eu-central-1.amazonaws.com/eucd/assets/_dpBkAW4/digital-sovereignty-from-narrative-to-policy.pdf (검색일: 2023.05.21.)

38) Tambiama Madiega, "Digital sovereignty for Europ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July 2020)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0/651992/EPRS_BRI\(2020\)651992_EN](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0/651992/EPRS_BRI(2020)651992_EN).

39) Tambiama Madiega, "Digital sovereignty for Europ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July 2020), p.3.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0/651992/EPRS_BRI\(2020\)651992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0/651992/EPRS_BRI(2020)651992_EN.pdf) (검색일: 2023.11.11.)

40) Tambiama Madiega, "Digital sovereignty for Europ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July 2020), p.4.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0/651992/EPRS_BRI\(2020\)651992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0/651992/EPRS_BRI(2020)651992_EN.pdf) (검색일: 2023.11.11.)

41) Tambiama Madiega, "Digital sovereignty for Europ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July 2020)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0/651992/EPRS_BRI\(2020\)651992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0/651992/EPRS_BRI(2020)651992_EN.pdf) (검색일: 2023.11.11.)

42) European Commission, "2023 Report on the state of the Digital Decade"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2023-report-state-digital-decade> (검색일: 2023.11.11.)

2. EU의 디지털 주권 개념의 구성과 특징 : 기술주권과 데이터 주권

유럽의 디지털 주권은 데이터 주권, 기술 주권을 중점으로 한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최고 권위와 통제권에 중점을 둔 중국의 담론과 달리,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자국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유럽의 디지털 주권 개념은 전략적 자율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목표로 한 기술주권과 데이터 주권을 그 핵심구성요소로 한다.

EU는 지난 10년간 사이버안보(cybersecurity)를 포함하여 ‘디지털 주권’ 담론을 강조하여 왔다.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지배력과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디지털 주권은 EU 담론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EU가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기술주권(technological sovereignty)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강조하고 있다.⁴³⁾ EU가 2020년 사이버 안보전략에서 언급한 주권 또한 기술주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이버 안보전략 보고서는 ‘기술주권(technological sovereignty)’ 맥락에서만 세 차례 주권을 언급하였다.⁴⁴⁾ 2022년 발표된 EU의 ‘사이버 국방(Cyber Defense)’ 보고서에서도 주권은 ‘기술주권’ 차원에서만 5차례 언급되었다. EU가 사이버 공간에서 기술주권, 디지털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⁴⁵⁾ 검색엔진, 브라우저, 주요운영체제 등 소프트웨어 제품이 대부분 EU 밖에서 개발되면서 EU의 디지털 의존성이 높다는 점에서, 디지털 주권 담론은 외국기업과 EU정부 사이의 긴장을 형성하게 된다.⁴⁶⁾

21세기 초기 20년은 사실 ‘디지털 기업주권(digital corporate sovereignty)’이 부상하였고 이는 기업자체 규제가 통제권을 형성하고 국가차원의 법적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했다.⁴⁷⁾ 그러나, 외국기업과 기술에 대한 의존과 이로부터 자국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과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기술주권 담론이 부상하였다. 유럽의 디지털 주권 담론에서 가장 가시적인 충돌은 기업과 국가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유럽의 ‘디지털 주권’이 말하는 것은 기술적 독립을 확보하고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⁸⁾ EU의 2020년 사이버 안보전략(Cybersecurity Strategy)는 새로운 기술이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고 있는 환경에서 보다 더 “기술적 주권”을 가지기 위한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⁴⁹⁾ 기술주권, 데이터주권을 기반으로 특정국에 의존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 전략적 주권(strategic sovereignty)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U는 ‘주권’이 매우 논쟁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국가마다 다른 이해를 나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디지털 분야와 연계된 주권에 대한 개념과 해석은 시민, 국가, EU 차원의 우려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기본권 보호부터 지경학적 강점과 취약성, 유럽의 군사적 우려사항 해결까지 그

43) André Barrinha and G. Christou (2022), “Speaking sovereignty: the EU in the cyber domain,” *European Security* 31 (3), p.356.

44) European Commission,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The EU’s Cybersecurity Strategy for the Digital Decade,” 2020.12.16.

45) European Commission,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 EU Policy on Cyber Defence,” 2022.11.10

46) Simona Autolitano, “Why the EU Should Stop Talking About Digital Sovereignty,” CFR, 2023.04.10. <https://www.cfr.org/blog/why-eu-should-stop-talking-about-digital-sovereignty>

47) Luciano Floridi (2019), “The Fight for Digital Sovereignty: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Especially for the EU,” *Philosophy & Technology* 33, pp.371-372.

48) Simona Autolitano, “Why the EU Should Stop Talking About Digital Sovereignty,” CFR, 2023.04.10. <https://www.cfr.org/blog/why-eu-should-stop-talking-about-digital-sovereignty>

49) André Barrinha and G. Christou (2022), “Speaking sovereignty: the EU in the cyber domain,” *European Security* 31 (3), p.356.

범위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고 결국 목표와 공동의 이익을 연결하고 전략적 혼선의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⁵⁰⁾

3. EU의 디지털 주권 개념 차별화와 권위주의적 주권 개념 비판

미국과 유럽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은 그들의 온라인 검열과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이버 주권을 언급해 왔다고 비판한다.⁵¹⁾ 2022년말 발간된 EU의 디지털 주권 보고서는 “EU의 디지털 주권 내려티브의 부상은 지정학적 경쟁,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유사한 용어를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러 양국이 사이버 주권(cyber sovereignty)이라는 표어 아래 정보흐름의 대내외적 통제와 체제 유지라는 외교 아젠더를 추구해 왔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EU의 디지털 주권이 권위주의 국가들의 사이버 주권 논의와 실질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러의 사이버 주권개념에 대한 서구의 비판을 거부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이는 UN 차원에서 EU가 해온 외교적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⁵²⁾

이러한 차원에서 EU는 디지털 주권 내려티브가 반드시 기본권의 틀에 확고히 자리잡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 주권과 관련 용어에 대한 논쟁을 주도할 기회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⁵³⁾ EU는 보고서에서 디지털 주권 내려티브가 정보통제의 권위주의적 사이버 주권 내려티브에 호도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면서 인권과 근본적 가치 위에 구축된 정체성을 강조한다.⁵⁴⁾

IV. 중국의 사이버 안보화와 주권 논쟁

1. 중국의 사이버 안보화와 주권 담론의 형성

중국도 사이버 주권에 대한 이론적 주장을 위해 기존 주권이론 논의를 차용하고 있다. 중국은 사이버 주권이 명백히 존재하며, 중국은 유엔헌장에서 제정한 주권평등 원칙을 인터넷 공간에 적

50) European Union, *Digital Sovereignty: From Narrative to Policy?* 2022.12. p. 11. https://eucd.s3.eu-central-1.amazonaws.com/eucd/assets/_dpBkAW4/digital-sovereignty-from-narrative-to-policy.pdf (검색일: 2023.05.21.), p.9.

51) INDO-PACIFIC DEFENSE FORUM STAFF, “Cyberspace Freedom, Allied and Partner Nations Resist Authoritarian Controls Imposed Under the Guise of Digital Sovereignty,” 2023.04.12. <https://dialogo-americas.com/articles/cyberspace-freedom-allied-and-partner-nations-resist-authoritarian-controls-imposed-under-the-guise-of-digital-sovereignty/>

52) European Union, *Digital Sovereignty: From Narrative to Policy?* 2022.12. p. 11. https://eucd.s3.eu-central-1.amazonaws.com/eucd/assets/_dpBkAW4/digital-sovereignty-from-narrative-to-policy.pdf (검색일: 2023.05.21.)

53) European Union, *Digital Sovereignty: From Narrative to Policy?* 2022.12. p. 11. https://eucd.s3.eu-central-1.amazonaws.com/eucd/assets/_dpBkAW4/digital-sovereignty-from-narrative-to-policy.pdf (검색일: 2023.05.21.)

54) European Union, *Digital Sovereignty: From Narrative to Policy?* 2022.12. p. 17. https://eucd.s3.eu-central-1.amazonaws.com/eucd/assets/_dpBkAW4/digital-sovereignty-from-narrative-to-policy.pdf (검색일: 2023.05.21.)

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⁵⁾ 국가 주권의 범위가 영토, 영공, 영해 등 영역에서 정보영역까지 확장된다는 것이다. 사이버 주권은 국가 주권이 사이버 공간에 자연스럽게 확장된 것을 표현한 것으로, 사이버 공간 주권 유지가 국가 이익, 안보 및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⁵⁶⁾ 2010년에 발간된 〈중국 인터넷 현황(中国互联网状况)〉 백서는 “인터넷은 국가의 중요기반시설로, 중국 국경내 인터넷은 중국 주권 관할 범위에 속하고, 중국의 인터넷 주권(互联网主权)은 당연히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⁵⁷⁾

2014년 11월 제1차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시진핑이 사이버 주권(网络主权)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후 주권은 사이버 공간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하고 있다.⁵⁸⁾ 시진핑은 축사에서 “중국은 세계 각국과 협력해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사이버 주권 존중, 사이버 안보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이버 주권은 시진핑이 제기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 개혁의 4대 원칙 중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⁵⁹⁾ 시진핑 주석이 최초로 사이버주권을 언급한 이후, 2015년 30여명의 다양한 기관의 연구자들이 중앙사이버업무영도소조(Central Leading Group for Cyberspace Affairs)와 중국공학원으로부터 ‘사이버 공간의 주권에 관한 연구’ 과제를 받았다. 연구는 세대, 발전, 분쟁, 안보와 사이버공간 주권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것이었고, 중국공학원의 천취닝 부원장은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⁶⁰⁾

이러한 중국의 사이버 주권 논의는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보화에 근거한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보호해야 할 대상에 어떠한 위협이 제기되고 있는가에 대한 규정과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라는 정치화 과정을 안보화라고 할 때 중국에게 가장 큰 위협은 사이버 공간이 사상적 침투가 가능한 ‘통제 밖의 영역’이고, 이는 공산당 영도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국경적 사이버공간이 중국의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위협할 수 있고 미국의 패권주의적 사이버 안보 담론이 중국 특색의 인터넷 발전의 길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⁶¹⁾ 중국의 사이버 주권 담론은 결국 체제안정, 즉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공산당 영도체제의 장기집권이라는 ‘정치안전(政治安全)’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사상안전(意识形态安全)’이 중요한 안보의 대상이고, 초국적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이동과 외세의 침투가 체제안보에 주요한 위협이라는 안보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정치안전과 사상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과업, 중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사이버 사상사업에서 주도권과 영도권을 확고히 틀어쥐어야 한다는 것이다.⁶²⁾

이러한 체제안정, 즉 시진핑 핵심 공산당 영도체제라는 정치안전과 사회주의 사상안전은 중국의 사이버 주권 담론의 핵심적 배경이다. 중국은 인터넷 발전에 대한 중국방식, 중국 공산당의

55) 国务院办公厅, “《携手构建网络空间命运共同体》白皮书,” 2022.11.07. <http://www.scio.gov.cn/zfbps/32832/Document/1732898/1732898.htm> (검색일:2022.05.21.)

56) 姬文波, “习近平国家安全思想的核心要义,” 『党的文献』 2018 (2), p. 43.

57)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办公厅, “中国互联网状况,” 2010.06.08. http://www.gov.cn/zhengce/2010-06/08/content_2615774.htm (검색일:2022.05.21.)

58) 人民网, “习近平强调‘尊重网络主权’有何深意,” 2015.12.16. <http://it.people.com.cn/GB/n1/2015/1216/c1009-27937865.html> (검색일:2022.05.21.)

59) 4대 원칙은 사이버 주권, 평화와 안전 유지, 개방 협력 촉진, 건전한 질서 구축이다. 姬文波, “习近平国家安全思想的核心要义,” 『党的文献』 2018 (2), p. 43.

60) Binxing Fang (2018), *Cyberspace Sovereignty: Reflections on building a community of common future in cyberspace*, Singapore: Springer, xi.

61)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보화 논의와 전략은 차정미(2018),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보’담론과 전략, 제도 분석,” 『국가안보와 전략』 18 (1) 참조.

62) 庄荣文, “坚决维护网上政治安全和意识形态安全 为强国建设民族复兴提供有力服务支撑,” 长安街读书会干部文摘, 2023.06.25. <https://new.qq.com/rain/a/20230625A086D600> (검색일: 2023.11.16.)

인터넷 통제권, 관리권이라는 차원에서 ‘중국 특색의 인터넷 통치 방안(中国特色治网之道)’을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은 인터넷 관리는 매우 정치적인 성격의 과제이며, 정치를 강조하는 것은 사이버 분야의 첫 번째 요구라고 언급했다. 정치 방향을 확고히 하고 사이버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 영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 주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강조하면서 사이버 주권은 국가주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⁶³⁾ 2022년 8월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도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을 통과하지 못하면 장기 집권도 통과할 수 없다(过不了互联网这一关就过不了长期执政这一关)”는 것이 시진핑 총서기의 결론이라고 강조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최근 몇 년간 인터넷을 파악하고 사용하는 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하고, 중국공산당이 장기간 집권하려면 국정운영 능력을 지속 제고하고 거버넌스 역량을 현대화해야 하는데, 10억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 수를 가진 중국의 거버넌스 현대화는 사이버 공간의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⁶⁴⁾

리단(李丹)은 사이버 주권 개념은 새로운 시대의 강대국 경쟁상황, 특히 서구 열강이 사이버 공간을 이념적 돌파구로 간주하는 현 상황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념은 국가정치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인터넷 플랫폼은 여러 나라의 이념과 여론이 대결하는 중요한 장소이고, 인터넷 이데올로기 싸움은 최근 몇 년간 특히 주목받는 이슈로 사이버 주권 존중과 국가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⁶⁵⁾ 중국에게 사이버 공간은 서구와의 이념대결의 장이고, 사이버 주권은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공산당 영도체제와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다.

2. 중국의 사이버 주권 개념의 구성과 특징 : 중국특색 인터넷 통치의 길(中国特色治网之道)

사이버 주권은 중국이 사이버 공간 글로벌 거버넌스와 사이버 공간 국제규칙에 대한 핵심주장 중 하나이다.⁶⁶⁾ 인민일보에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국경이 있듯이 인터넷 자체에 국경은 없지만 사이버 공간에는 주권이 있다고 강조하고, 중국 내 네트워크는 당연히 국가주권의 범위에 있고 영토 내 네트워크에 대해 중국의 입법과 사법 등으로 인터넷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다.⁶⁷⁾ 2010년에 발간된 <중국 인터넷 현황(中国互联网状况)> 백서는 “인터넷은 국가의 중요기반시설로, 중국 국경 내 인터넷은 중국 주권 관할 범위에 속하고, 중국의 인터넷 주권(互联网主权)은 당연히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시에는 사이버 공간 주권(网络空间主权)이라는 언급은 명시적으로 없으나 일관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⁸⁾ 2014년 11월 제1차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시진핑이 사이버 주권(网络主权)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후 사이버 주권은 사이버 공간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하고 있다.⁶⁹⁾ 시진핑은 축하에서

63)中国青年网, “把牢政治方向建设网络强国,” 2023.07.25. <https://baijiahao.baidu.com/s?id=1772343034343251062&wfr=spider&for=pc> (검색일: 2023.10.07.)

64) 红星新闻, “为什么‘过不了互联网这一关就过不了长期执政这一关’? 中宣部权威回应来了,” 2022.08.18. <https://baijiahao.baidu.com/s?id=1741475327486407611&wfr=spider&for=pc> (검색일: 2023.10.07.)

65) 李丹, “全面推进依法治网, 为网络强国建设保驾护航,” 环球网, 2023.09.15. <https://baijiahao.baidu.com/s?id=1777100224118258045&wfr=spider&for=pc> (검색일: 2023.10.07.)

66) 黄志雄 (2017), 『网络主权论: 理论, 政策与实践』(社会科学文献出版社), p. 2.

67) 人民网, “习近平强调‘尊重网络主权’有何深意,” 2015.12.16. <http://it.people.com.cn/GB/n1/2015/1216/c1009-27937865.html> (검색일: 2023.05.21.)

68)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办公厅, “中国互联网状况,” 2010.06.08. http://www.gov.cn/zhengce/2010-06/08/content_2615774.htm (검색일: 2022.05.21.)

“중국은 세계 각국과 협력해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사이버 주권 존중, 사이버 안보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이버 주권은 시진핑이 제기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 개혁의 4대 원칙 중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⁷⁰⁾

시진핑이 최초로 사이버주권을 언급한 이후, 2015년 30여명의 다양한 기관의 연구자들이 중앙사이버업무영도소조와 중국공학원으로부터 ‘사이버 공간의 주권에 관한 연구’ 과제를 받았다. 연구는 세대, 발전, 분쟁, 안보와 사이버 공간 주권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것이었다.⁷¹⁾ 중국이 사이버 주권 이론과 실재를 연구하는 목적은 각국의 사이버 주권상 정책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⁷²⁾ 이후 다양한 연구와 법제도 분야에서 사이버 주권 관련 논의와 제도화가 구체화되었다. 2020년 중국중앙사이버안보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이 발표한 ‘사이버주권: 이론과 실천(2.0버전)’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이다. 우한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상하이사회과학원이 공동 발기하고, 중국사회과학원, 칭화대, 푸단대, 난징대, 국제경영경제대, 중국사이버공간안보협회가 공동출판하는 방식으로 발표되었다. 본 발표문은 국가주권의 의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풍부해졌다고 강조하고, 정보화 시대 들어 사이버 공간은 인간활동의 실제 공간과 고도로 통합되어 현대 국가의 새로운 영토이자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영역이 되었고 여기서 사이버 주권이 탄생한다고 주장한다. 주권국가는 사이버 공간활동을 전개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자이고 <유엔헌장>에 확립한 주권평등의 원칙은 당대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이고, 이는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⁷³⁾

사이버 안보 관련 각종 입법과 제도들도 최우선 원칙으로 주권을 내세우고 있다. 2016년 통과된 <사이버 안보법(网络安全法)>은 사이버 공간 주권 유지를 입법의 기본목적으로 제시하였다. 2016년 <국가사이버 공간 안보전략(国家网络空间安全战略)>도 사이버 공간 주권을 국가주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삼는다고 강조하였다. 2017년 <사이버 공간 국제협력전략(网络空间国际合作战略)>에서도 주권원칙이 협력의 기본원칙으로 제시되었다.⁷⁴⁾ 2021년 데이터안보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도 제1조에서 본 법의 취지를 국가주권 보호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중앙 집중적, 통일적, 효율적이고 권위있는 데이터 안보 위험 관리와 조치의 권한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⁷⁵⁾ 2023년 3월 <신시대 중국 사이버법치건설(新时代的中国网络法治建设)> 백서 또한 국가 사이버 주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⁷⁶⁾

시진핑 3기 체제들어 사이버 안보와 주권 개념은 점점 더 1인 권력 중심의 담론이 강화되고 있다. 시진핑은 인터넷 관리는 매우 정치적인 성격의 과제이며, 정치를 강조하는 것은 사이버 분야의 첫 번째 요구라고 언급했다. 정치방향을 확고히 하고 사이버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 영

69) 人民网, “习近平强调“尊重网络主权”有何深意,” 2015.12.16. <http://it.people.com.cn/GB/n1/2015/12/16/c1009-27937865.html> (검색일:2022.05.21.)

70) 4대 원칙은 사이버 주권, 평화와 안전 유지, 개방 협력 촉진, 건전한 질서 구축이다. 姬文波, “习近平国家安全思想的核心要义,” 『党的文献』 2018 (2), p. 43.

71) Binxing Fang (2018), *Cyberspace Sovereignty: Reflections on building a community of common future in cyberspace*, Singapore: Springer, xi.

72) 黄志雄 (2017), 『网络主权论: 理论, 政策与实践』(社会科学文献出版社), p. 3.

73)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网络主权: 理论与实践(2.0版),” 2020.11.25. http://www.cac.gov.cn/2020-11/25/c_1607869924931855.htm (검색일: 2023.10.06.)

74)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网络主权: 理论与实践(2.0版),” 2020.11.25. http://www.cac.gov.cn/2020-11/25/c_1607869924931855.htm (검색일: 2023.10.06.)

75) 新华社,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2021.08.02. <http://h5.ccbn.net/folder34/folder35/folder422/2022-08-02/0StloJmWadbl6yf5.html> (검색일:2023.10.07.)

76) 国务院新闻办公室, “新时代的中国网络法治建设,” 2023.03.16. http://www.cac.gov.cn/2023-03/16/c_1680605020289829.htm (검색일: 2023.10.07.)

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 주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강조하면서 사이버 주권은 국가주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⁷⁷⁾ 시진핑 체제 들어 주권 담론은 점점 더 최고 권력자에 부여된 권한에 무게를 두면서, 사이버 안보와 주권 논의 또한 시진핑의 사이버 주권론을 선전하고 있다. 최근 인민일보는 시진핑이 ‘사이버 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인식으로 직접 사이버 문제를 지휘하고 이끌어왔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고,⁷⁸⁾ 2023년 7월 중앙사이버안보와 정보화위원회는 〈시진핑총서기의 사이버강국에 대한 중요사상소개(习近平总书记关于网络强国的重要思想概论)〉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본 책은 시진핑의 사이버 권력 사상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사이버강국 건설을 위한 당의 전면적 영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⁷⁹⁾

중국의 사이버 주권 담론은 중국 특색의 인터넷 통치 방안에 대한 존중과 국가의 통치권한, 그리고 내정불간섭을 핵심 요소로 한다. 중국은 사이버 주권 이론과 실재를 연구하는 목적을 각국의 사이버 주권 정책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⁸⁰⁾ 중국 중앙사이버안보와 정보화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사이버 주권은 “국가주권이 사이버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된 것으로, 국가주권을 바탕으로 자국 영토 내 네트워크 시설, 네트워크 주체, 네트워크 행위, 관련 네트워크 데이터와 정보 등에 대해 갖는 최고의 권한이면서 대외적 독립권리”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주권국가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외부 간섭없이 인터넷 발전 경로, 거버넌스 모델 및 공공정책을 독립적으로 선택할 권리인 <독립권>, 유엔헌장의 주권평등 원칙에 따라 주권국가가 사이버 공간의 국제거버넌스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국제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할 권리인 <평등권>, 입법규제권, 행정관할권, 사법관할권 등을 포함한 <관할권>, 자체 사이버 안보 역량을 구축할 권리와 외부침해로부터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헌장의 틀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방어권>을 제시하였다. 사이버 주권의 의무로 <불가침, 내정불간섭>을 제시하고 있다.⁸¹⁾ 중국의 사이버 공간 주권은 국가의 통제권과 외세의 개입으로부터의 독립권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마오신취안(毛欣娟)과 런자옌(任珈炎)은 영토내 사이버 활동에 대해 갖는 국가의 권한을 강조하면서 데이터 주권은 사이버 공간의 국가주권의 하위개념으로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데이터 주권의 주체는 국가이지 개인이 아니라(数据主权的主体是国家而非个人)고 강조한다.⁸²⁾ 마오신취안과 런자옌은 사이버 주권을 “물리층(物理层)” “논리층(逻辑层)” “데이터층(数据层)” 등 3개 층위로 구분하고, 물리층은 국가가 국가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사이버 활동에 대해 갖는 주권이고, 논리층은 컴퓨터 코드 차원에 대한 국가주권으로 데이터전송 통신 프로토콜 및 네트워크 상호연결 특히 도메인 이름시스템 등에 대한 국가주권을, 데이터층은 데이터 관할 및 데이터 소유권 측면의 국가주권으로 설명하였다.⁸³⁾ 중국의 사이버 주권은 이렇듯 사이버 공간과 인프라, 데이터

77)中国青年网, “把牢政治方向建设网络强国,” 2023.07.25.
<https://baijiahao.baidu.com/s?id=1772343034343251062&wfr=spider&for=pc> (검색일: 2023.10.07.)

78)中国政府网, “庄荣文:深入学习贯彻习近平总书记关于网络强国的重要思想,” 2021.05.05.
https://www.gov.cn/xinwen/2021-05/05/content_5604771.htm (검색일: 2023.10.07.)

79)人民网, “《习近平总书记关于网络强国的重要思想概论》出版发行,” 2023.07.12.
<https://baijiahao.baidu.com/s?id=1771164591362034307&wfr=spider&for=pc> (검색일: 2023.10.07.)

80)黄志雄 (2017), 『网络主权论: 理论, 政策与实践』(社会科学文献出版社), p. 3.

81)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网络主权: 理论与实践(2.0版),” 2020.11.25.
http://www.cac.gov.cn/2020-11/25/c_1607869924931855.htm (검색일: 2023.10.06.)

82)毛欣娟, 任珈炎 (2023), “国家安全视域中我国数据主权安全面临的挑战及其对策,” 『社会治理』, 2023年第1期.
https://www.cssn.cn/gjaqx/202304/t20230410_5618788.shtml

83)毛欣娟, 任珈炎 (2023).

등 모두가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주권의 주체를 국가로 강조하고, 정치안전과 사상안전을 위한 대내 통제와 외세개입 불가라는 차원에서 사이버 주권을 접근하고 있다.

3. 중국의 사이버 주권과 반패권/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网络空间命运共同体)

유럽의 디지털 주권이 개인정보와 전략적 자율성 보호, 기본원 기반 원칙 등을 강조하는 데 반해 중국의 사이버 주권 담론은 사이버 패권의 예방과 저항을 강조한다.⁸⁴⁾ 중국은 사이버 주권 구축의 주요한 도전과제로 국제사회의 인식차이를 강조하고 있다.⁸⁵⁾ 중국은 미국의 사이버 패권과 내정간섭, 불평등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비판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등 사이버 공간 이슈에서 중국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주력하고 사이버 주권 원칙을 주요한 외교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2015년 중국과 러시아 등은 ‘정보보호를 위한 국제행동 강령(信息安全国际行为准则)’에서 인터넷 관련 정책결정이 각국 주권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⁸⁶⁾ 중러 양국은 2022년 2월 공동성명에서도 글로벌 포럼에서 사이버 주권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재확인했고,⁸⁷⁾ 국가 사이버 주권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⁸⁸⁾ 중국은 어떠한 국가도 사이버 패권을 행사하거나, 타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활동을 묵인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이 주장하는 운명공동체 건설의 기본 전제라고 강조하고, 사이버 공간에 관한 국제규칙에 있어 사이버 주권의 원칙이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⁸⁹⁾

2022년 말 발간한 중국의 ‘사이버공간운명공동체 구축(携手构建网络空间命运共同体)’ 백서 또한 운명공동체 구축의 핵심으로 사이버 주권 존중을 내세우고 있다. 모든 국가가 사이버 정책을 독립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강조하고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권력정치, 내정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사이버 활동을 묵인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중국은 유엔헌장에서 제정한 주권평등 원칙을 인터넷 공간에 적용하고 국가주권에 기초해 인터넷 공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할 것을 주장한다.⁹⁰⁾ 각국은 손을 잡고 사이버 공간에서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사이버 주권 원칙을 견지하고, 사이버 패권을 단호히 반대하며,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 간첩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및 퇴치하며, 평화롭고 안전하며 개방적인 공간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⁹¹⁾ 국무원

84)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网络主权：理论与实践(2.0版),” 2020.11.25. http://www.cac.gov.cn/2020-11/25/c_1607869924931855.htm (검색일: 2023.10.06.)

85) 黄志雄 (2017), 『网络主权论：理论、政策与实践』(社会科学文献出版社), p.30.

86)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网络主权：理论与实践(2.0版),” 2020.11.25. http://www.cac.gov.cn/2020-11/25/c_1607869924931855.htm (검색일: 2023.10.06.)

87) John Lee (2022), “China-Russia cooperation in advanced technologies: The future global balance of power and the limits of ‘unlimited’ partnership,” *Australia-China Relations Institute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p.11.

88) 新华社,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新时代国际关系和全球可持续发展的联合声明,” 2022.02.05. https://roll.sohu.com/a/520629145_119038 (검색일: 2023.09.12.)

89) 金台资讯, “坚持推动构建网络空间命运共同体,” 2023.07.28. <https://baijiahao.baidu.com/s?id=1772622724763493013&wfr=spider&for=pc> (검색일: 2023.09.17.)

90) 国务院新闻办公室, “《携手构建网络空间命运共同体》白皮书,” 2022.11.07. <http://www.scio.gov.cn/zfbps/32832/Document/1732898/1732898.htm> (검색일: 2022.05.21.)

91) 中国青年网, “把牢政治方向建设网络强国,” 2023.07.25. <https://baijiahao.baidu.com/s?id=1772343034343251062&wfr=spider&for=pc> (검색일: 2023.10.07.)

사이버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양수전(杨树楨) 정책연구국국장도 사이버공간 운명공동체 개념과 관련하여 ‘반패권’을 강조하고, 인터넷이 모든 국가의 주권, 안보 및 개발이익에 일련의 새로운 위협과 도전을 가지고 왔다고 강조하고 인터넷 주권 존중을 강조했다.⁹²⁾

중국은 스스로 사이버 주권 발의국이며 주창국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이 주창한 사이버 안보 주권은 이미 세계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보편적 개념이라고 강조한다.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들과 상하이 협력기구 등이 적극적으로 사이버 주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미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인터넷에 대한 실질적 관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⁹³⁾ 중국은 중국의 사이버 주권원칙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 주권 원칙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사이버 공간 전략에서 ‘사이버 주권’ 개념을 강조하고, 디지털 시대의 발전권 보장을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베트남의 사이버 안보 법도 독립, 주권, 영토보전, 상호 내정불간섭 등을 원칙으로 하고, EU도 사이버 공간의 기술주권을 제안했다는 것이다.⁹⁴⁾ 이렇듯 중국은 중국의 사이버 주권 담론이 글로벌 보편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서사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권의 원칙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점은 이미 많은 국제문서에서 확인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V. 결론 : 네 번째 혁명과 사이버 주권 논쟁의 미래

시기별로 주권개념의 변화가 있어왔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21세기까지 주권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주권은 과거의 군주적 주권(sovereignty of monarch)에서 대중적 주권(popular sovereignty)으로 이동하고, 최근에는 신흥기술의 부상과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공간의 주권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주권 논쟁은 디지털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강대국 경쟁의 부활 속에서 중국과 서구간 새로운 담론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글로벌 무역 및 환경 정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거버넌스와 규범은 이제 국가 간 국제 갈등의 중점이 되고 있다. 뮐러(Mueller 2010)는 인터넷은 통제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초기질문은 이제 과연 기존과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넘어왔다고 강조한다. 국가는 여전히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제공자로 압도적 위상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영토에 제한된 국가주권과 네트워크로 창출된 사회적 상호작용의 비영토적 공간 사이에 강력하고 일관된 긴장이 존재한다고 강조한다.⁹⁵⁾ 첸더(Chander)와 선(Sun)도 디지털 주권은 필요하면서도 위험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디지털 주권은 대중적 주권(popular sovereignty)일 뿐만 아니라 진짜 싫은 것(bête noire)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⁹⁶⁾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담론 경쟁이 국가와 국민간의 통제권과 기본권을 둘러싼 긴장과 연계되면서 사이버 주권 개념은 여전히 일치와 합의가 취약한 논쟁적 단계에 있다. 사이버 공간과 연계된 주권 논쟁은 주권 개념의 내재된 모호성과 변동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주권 개념의 모호성과 논

92) 中国经济网, “总书记关于构建网络空间命运共同体理念主张可概括为‘四句话’,” 2022.11.07. <https://baijiahao.baidu.com/s?id=1748818754769213399&wfr=spider&for=pc> (검색일: 2023.05.21.)

93) 黄志雄 (2017), 『网络主权论: 理论, 政策与实践』(社会科学文献出版社), p.31.

94)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网络主权: 理论与实践(2.0版),” 2020.11.25. http://www.cac.gov.cn/2020-11/25/c_1607869924931855.htm (검색일: 2023.10.06.)

95) Milton L. Mueller, *Networks and States : The Global Politics of Internet Governance* (MIT Press, 2010) p.1.

96) Anupam Chander, Haochen Sun (2021), “Sovereignty 2.0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p.8.

란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이버 주권에 대한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에 근거한 보편 규범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자체에 다양한 제약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쟁적 환경 속에서 사이버 안보(cybersecurity) 문제는 주권국가에 가장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⁹⁷⁾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공간의 부상은 전통적인 국가주권 개념에 근본적인 도전은 물론 국가간 논쟁을 초래하고 있다. 전통적 국가주권(classic state sovereignty)이 대중 주권(popular sovereignty)을 넘어, 기술주권(techno sovereignty)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통적인 주권 개념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에 의한 창조물이며, 주권은 보호와 방어를 목적으로 인간에 의해 그 국가에 제공된 권한으로 영토 내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지속 변화되어온 주권 개념 또한 새로운 라운드의 변화와 논쟁에 직면해 있다.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강대국 경쟁의 심화, 그리고 급속한 기술혁신은 사이버 공간의 주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전통적 주권 논쟁에서부터 최근 부상한 기술주권, 디지털 주권 논의에서 보듯 기술역량이 주권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면서 주권의 구성과 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진화하고 있다.

필포트(Philpott)는 두 가지 역사적 혁명-개신교 종교개혁 이후 유럽에 주권국가체제를 도입한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 2차대전 이후 평등과 식민 민족주의사상에 따라 식민제국이 종식되고 주권국가 체제가 확산된 것-이 오늘날의 주권국가로 구성된 국제질서를 만들었다고 강조한다.⁹⁸⁾ 세 번째 혁명은 정보화와 세계화였다.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한 사이버 공간의 부상과 초국적 연결의 부상은 국가주권 자체의 위기와 이후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요구들로 이어졌고 강대국 경쟁의 부활과 함께 주권 개념의 충돌과 혼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이 주권국가에 주는 주요한 도전은 초국적 범위, 무한 규모, 통제권의 분산이다. 네트워킹에 대한 권한과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정치권력 기구와 밀접히 연계되지 않고 초국적 정책 네트워크 형성 등 정치 자체를 바꾸고 있기도 한다. 물려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소통과 정보에 대한 국가 통제와 주권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⁹⁹⁾ 이제 네 번째 혁명인 지능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반의 국제질서는 정보화 시대 보다 전통적 주권 개념에 더 심대하고 중대한 도전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 영토 경계 내의 최고 권위와 관할권, 타국으로부터의 내정간섭 반대와 반패권을 주장하면서 사이버 주권을 디지털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가통치의 주요한 원칙으로 강조하는 중국과, 중국의 권위주의적 사이버 주권 논쟁에 대응해 인권, 자유 등 보편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주장하는 서구의 인식은 생성형 AI 시대 또 다른 라운드의 주권 논쟁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화 시대 보다 훨씬 더 통제하기 어려운, 경계짓기 어려운 공간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탄생은 주권 개념의 재정의와 적용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주권’은 매우 논쟁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국가마다 다른 이해를 나눌 수 있다. 하오(Hao 2017)는 사이버 공간의 주권 논쟁이 3가지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균열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즉, 사이버 주권과 인터넷의 본질 간의 논쟁으로 사이버 공간의 분리가 결국 인터넷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사이버 주권과 인권간의 충돌이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주권의 명분의 국가개입의 문제이다. 대체로 중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97) Hao Yeli (2017), “A Three-Perspective Theory of Cyber Sovereignty,” *Prism* 7 (2), p. 109.

98) Daniel Philpott (2001). *Revolutions in Sovereignty : How Ideas Shaped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99) Milton L. Mueller, *Networks and States : The Global Politics of Internet Governance* (MIT Press, 2010) pp.4-5.

셋째로 사이버 주권과 다양한 거버넌스 이해관계자들간의 충돌이다. 주권 정부가 주도하는 거버넌스가 다원화된 거버넌스에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⁰⁾ 결국 이러한 주권 논쟁과 혼선, 갈등 속에서 목표와 공동의 이익을 연결하고 전략적 혼선의 위험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¹⁰¹⁾ 중국의 사이버 주권, 유럽의 디지털 주권 등 각자의 안보적 환경과 필요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는 서로 다른 내용의 주권 논의 속에서 한국의 사이버 주권의 개념화와 핵심원칙의 토론을 통해 양분화된 대결구도의 사이버 주권 논쟁을 미래지향적 건설적 논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한 때이다.

100) Hao Yeli (2017), "A Three-Perspective Theory of Cyber Sovereignty," *Prism* 7 (2), pp.109-110.

101) European Union, *Digital Sovereignty: From Narrative to Policy?* 2022.12. p. 11.
<https://euclid.s3.eu-central-1.amazonaws.com/euclid/assets/dpBkAW4/digital-sovereignty-from-narrative-to-policy.pdf> (검색일: 2023.05.21.)

〈참고문헌〉

- 차정미. 2018.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보 담론과 전략, 제도 분석.” 『국가안보와 전략』 18(1)
- Barkin, J. Samuel. 2021. *The Sovereignty Cart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din, Jean. 1992. *On Sovereignty: Four Chapters from the Six Books of the Commonwealt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nder, Anupam and Haochen Sun. 2021., *Sovereignty 2.0*,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 Campos, André Santos and Susana Cadilha. 2021. *Sovereignty as Value: Values and Identities: Crossing Philosophical Border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Fang, Binxing. 2018. *Cyberspace Sovereignty: Reflections on building a community of common future in cyberspace*, Singapore: Springer.
- Hobbes, Thomas. 1651. *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l and Civill*. London, printed for Andrew Crooke, at the Green Dragon in St. Pauls Church-yard.
- Mueller, Milton L. 2010. *Networks and States : The Global Politics of Internet Governance*. MIT Press.
- Neffm, Stephen C. 2012. *Hugo Grotius on the Law of War and Peace*, Student E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hilpott, Daniel. 2001. *Revolutions in Sovereignty : How Ideas Shaped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mitt, Carl. 2005. *Political Theology: Four Chapters on the Concept of Sovereignty*. University Chicago Press.
- Schmitt, Michael N. 2013. *Talli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International Group of Experts at the Invitation of the NATO Cooperative Cyber Ceter of Excell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mitt, Michael N. 2017. *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utolitano, Simona. “Why the EU Should Stop Talking About Digital Sovereignty,” CFR, 2023.04.10.
- Barlow, John Perry. “A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1996.02.08.
<https://www.eff.org/cyberspace-independence#main-content>
- Barrinhaa, André and G. Christou. 2022. “Speaking sovereignty: the EU in the cyber domain,” *European Security* 31 (3).
- Biersteker, Thomas J. 2013. “State, Sovereignty, and Territory,” in Walter Carlsnaes, Thomas Risse and Beth A. Simmons,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2nd edition. Sage Publication

-
- Brown, Chris. 2022. "The State and Sovereignty," in Colin Hay, Michael Lister and David Marsh eds. *The State: Theories and Issues* (2nd edition). London: Bloomsbury Academic.
- Cattaruzza, Amaël, Didier Danet and Stéphane Taillat. 2016. "Sovereignty in Cyberspace: Balkanization or Democratization," IEEE 2016 International Conference.
- Celeste, Edoardo. 2021. "Digital Sovereignty in the EU: Challenges and Future Perspectives," in Federico Fabbrini, Edoardo Celeste and John Quinn (eds), *Data Protection beyond Borders: Transatlantic Perspectives on Extraterritoriality and Sovereignty*. Hart.
- Floridi, Luciano. 2019. "The Fight for Digital Sovereignty: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Especially for the EU," *Philosophy & Technology* 33.
- Hansen, Lene and Helen Nissenbaum. 2009. "Digital Disaster, Cyber Security, and the Copenhagen School."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3.
- Hao, Yeli. "A Three-Perspective Theory of Cyber Sovereignty," *Prism* 7 (2).
- Jensen, Eric Talbot. 2014. *Cyber Sovereignty: The Way Ahead*, 50 *TEX. INT'L L. J.* 275. https://digitalcommons.law.byu.edu/cgi/viewcontent.cgi?article=1239&context=faculty_scholarship
- Lee, John. 2022. "China-Russia cooperation in advanced technologies: The future global balance of power and the limits of 'unlimited' partnership," Australia-China Relations Institute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 Madiega, Tambiama. "Digital sovereignty for Europ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July 2020.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0/651992/EPRS_BRI\(2020\)651992_EN](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0/651992/EPRS_BRI(2020)651992_EN).
- Morris, Christopher W. "Sovereignty, Some Skeptical Thoughts," in André Santos Campos, Susana Cadilha (2021), *Sovereignty as Value: Values and Identities: Crossing Philosophical Border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Palaniappan, Madhuvanthi. "Cyber Sovereignty: In Search of Definitions, Exploring Implications," ORF Issue Briefs and Special Reports. 2022.12.28.
- Indo-Pacific Defense Forum Staff, "Cyberspace Freedom, Allied and Partner Nations Resist Authoritarian Controls Imposed Under the Guise of Digital Sovereignty," 2023.04.12. <https://dialogo-americas.com/articles/cyberspace-freedom-allied-and-partner-nations-resist-authoritarian-controls-imposed-under-the-guise-of-digital-sovereignty/>
- European Union, *Digital Sovereignty: From Narrative to Policy?* 2022.12. https://eucd.s3.eu-central-1.amazonaws.com/eucd/assets/_dpBkAW4/digital-sovereignty-from-narrative-to-policy.pdf
- UN General Assembly.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Advancing Responsible State Behaviour in Cyberspac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2021.7.14.

<https://dig.watch/wp-content/uploads/2022/08/UN-GGE-Report-2021.pdf>
The White Hous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2023.03.
UN. “United Nations Charter.”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full-text>
European Union. Digital Sovereignty: From Narrative to Policy? 2022.12.
https://eucd.s3.eu-central-1.amazonaws.com/eucd/assets/_dpBkAW4/digital-sovereignty-from-narrative-to-policy.pdf
European Commission. “2023 Report on the state of the Digital Decade”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2023-report-state-digital-decade>
European Commission.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The EU's Cybersecurity Strategy for the Digital Decade,” 2020.12.16.

黄志雄. 2017. 『网络主权论：理论，政策与实践』. 社会科学文献出版社.
姬文波. 2018. “习近平国家安全思想的核心要义.” 『党的文献』 2018 (2).
李丹. “全面推进依法治网，为网络强国建设保驾护航.” 环球网, 2023.09.15.
<https://baijiahao.baidu.com/s?id=1777100224118258045&wfr=spider&for=pc>
庄荣文. “坚决维护网上政治安全和意识形态安全 为强国建设民族复兴提供有力服务支撑,”
长安街读书会干部文摘, 2023.06.25.
<https://new.qq.com/rain/a/20230625A086D600>
毛欣娟, 任珈炎. 2023. “国家安全视域中我国数据主权安全面临的挑战及其对策,” 『社会治理』,
2023年第1期. https://www.cssn.cn/gjaqx/202304/t20230410_5618788.shtml
红星新闻. “为什么“过不了互联网这一关就过不了长期执政这一关”? 中宣部权威回应来了.”
2022.08.18.
<https://baijiahao.baidu.com/s?id=1741475327486407611&wfr=spider&for=pc>
人民网. “习近平强调“尊重网络主权”有何深意,” 2015.12.16.
<http://it.people.com.cn/GB/n1/2015/12/16/c1009-27937865.html>
人民网. “《习近平总书记关于网络强国的重要思想概论》出版发行,” 2023.07.12.
<https://baijiahao.baidu.com/s?id=1771164591362034307&wfr=spider&for=pc>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办公厅. “中国互联网状况,” 2010.06.08.
http://www.gov.cn/zhengce/2010-06/08/content_2615774.htm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网络主权：理论与实践(2.0版).” 2020.11.25.
http://www.cac.gov.cn/2020-11/25/c_1607869924931855.htm
新华社.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2021.08.02.
<http://h5.cbbn.net/folder34/folder35/folder422/2022-08-02/0StloJmWadbL6yf5.html>
新华社.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新时代国际关系和全球可持续发展的联合声明.”
2022.02.05.
https://roll.sohu.com/a/520629145_119038
国务院新闻办公室. “新时代的中国网络法治建设,” 2023.03.16.
http://www.cac.gov.cn/2023-03/16/c_1680605020289829.htm
国务院新闻办公室. “《携手构建网络空间命运共同体》白皮书,” 2022.11.07.
<http://www.scio.gov.cn/zfbps/32832/Document/1732898/1732898.htm>
中国青年网. “把牢政治方向建设网络强国,” 2023.07.25.

<https://baijiahao.baidu.com/s?id=1772343034343251062&wfr=spider&for=pc>
中国政府网, “庄荣文: 深入学习宣传贯彻习近平总书记关于网络强国的重要思想,” 2021.05.05.
https://www.gov.cn/xinwen/2021-05/05/content_5604771.htm
金台资讯, “坚持推动构建网络空间命运共同体.” 2023.07.28.
<https://baijiahao.baidu.com/s?id=1772622724763493013&wfr=spider&for=pc>
中国经济网, “总书记关于构建网络空间命运共同体理念主张可概括为‘四句话’.” 2022.11.07.
<https://baijiahao.baidu.com/s?id=1748818754769213399&wfr=spider&for=pc>

*이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사이버안보학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